

광주·전남 민선8기 취임 1년

“AI·미래차 양날개로 첨단기술 선도”

“혁신기업 성장하는 도시· 창의인재 도시 조성”

군공항특별법·복합쇼핑몰 유치 등 최대 현안 물꼬

강기정 시장은 25일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양 날개로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도시, 혁신기업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도시, 창의인재가 모이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지금 광주는 미래 경쟁력을 키워 나아가야 하는 시기다. AI와 미래차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 군공항이전 특별법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해서 “물꼬를 댔다”고 평가했다. 일각의 ‘불통’ 지적에 대해서 “잘못 씌워진 프레임으로,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취임 일선으로 ‘익숙한 것’과 ‘낯설은 것’을 선별하고, 관습적 의전도 벗어던졌고 현관 앞 도열이 사라졌고 행사장 이동 중 부사장 브리핑도 없었다”며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 노력했고, 위기 때마다 시민들이 함께 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

혔던 광주군공항이전사업에 물꼬를 댔고 안전성 논란을 빚었던 지산IC 진출로 대안 제시, 무등산 정상 상시개방 등의 성과도 이뤘다”며 “지역 관광·유통산업에 큰 변화의 물결을 불러 올 복합쇼핑몰 유치사업도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빛그린산단 지정 이후 14년 만에 신규 국가산단(미래차산단)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고 복지분야 공약 1호로 빈틈없는 전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선보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며 광주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시장은 “5+1’을 비롯한 주요 현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고 있다. 간절함·집중력·집단지성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의 ‘그랜드 비전’으로 AI와 미래차는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양날개가 될 것이다.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을

강기정 광주시장



구체화하는 한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부터 자율주행까지 미래차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광주가 가장 먼저 만들어갈 것”이라며 “AI 집적단지 2단계 사업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랜드 비전 달성을 위해서 탄탄한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에 힘쓰겠다”며 “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간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광주가 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경쟁”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지사는 25일 “지난 5년 전남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서울만 바라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경쟁하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민선 8기 2년 차 전남 도정도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완성에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남은 이제 농도(農道)·수산도(水産道)에서 한 발짝 나아가 조선·철강 등 전통산업

“탈지역화·세계와의 경쟁” 강조… “성장기반 다져”

“무한한 가능성·잠재력 확인…전남 대도약에 온힘”

과 우주·항공,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첨단산업, 해양관광·재생에너지·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기로에 서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로 전남도민의 20년 염원이 깃든 속원사업인 혁신공방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광주전남반도체 특화단지 공동 유치 추진,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갈등 해결, 화순 동북면 관리권 조정 등 운명 공동체인 광주와 상생은 물론 미래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경남과도 남해안 발전에 뜻을 모으기로 손을 맞잡는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행정체 탄력이 붙었다.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확대 등 100건이 넘는 신규사업 유치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성장기반도 확실히 다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부권과 더불어 전남의 권역별 고른 성장을 위해 5월 말 ‘서남권발전 신(新) 활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대표사업인 광

주-영암 간 아우토반(초고속도로) 건설은 20대 대선 당시 지역 공약으로 호남의 새로운 대동맥이자, 판을 뒤흔들 획기적 사업이다. 광주와 영암을 아우토반으로 연결하고 영암에서 목포 삼학도까지 해상 교량을 놓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목포 구도심에서 하당~남악~오룡 구간은 차세대 친환경 대중교통인 ‘전남형 트램’ 설치도 준비 중이다”며 “인공지능·자율주행·슈퍼카 테스트베드 역할과 F1 경기장 활성화로 목포와 영암 등 서남권 일대를 전 세계인이 찾는 대표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고흥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우주발사체 특화산단 후보지로 확정됐고, 순천 율촌산단엔 우주발사체 단 조립장을 유치함으로써 세계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불모지였던 전남이 불과 1년 만에 차세대 반도체산업 국가 공모사업에 4개(1133억원)가 선정됐다”며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해 첨단 전략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는 발판을 놓겠다”고 밝혔다. /김호 기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밑그림 그려졌다

사업비 212억원 ‘비공인 국제행사’…연계사업 1000억 규모

여수시가 섬의 가치와 무한한 미래를 향해 준비 중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예산 및 규모, 프로그램 등 밑그림이 완성됐다.

25일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섬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무리하고 3년 앞으로 다가온 섬 박람회 개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섬 박람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이어졌다.

그동안 전체 의원 간담회와 부흥

사장 주민 설명회, 종합기본계획 시민 설명회, 중간 보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종합기본계획은 ‘섬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큰 틀 아래 세부적인 추진 전략을 담았다.

섬 박람회 주 행사장인 돌산읍 진모지구와 부 행사장인 개도, 금오도,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역할과 전시장 배치 등을 정했다. 이 외 여수 모든 섬이 박람회화 되는 공간 개념을 제시했다.

핵심 콘텐츠가 될 주제관은 ‘바다

의 무한한 가치’와 ‘바다와 인류를 잇는 섬’, ‘섬이 꿈꾸는 미래’의 세 가지 스토리라인을 토대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를 ‘이머시브 미디어터널(Immersive media tunnel)’로 구현한다.

관람객이 온몸으로 직접 느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첨단 IT기술을 통해 현실적이고 생생한 디지털로 표현된 작품을 실감 콘텐츠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UAM 탑승 행사도 인기리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사장 내에 UAM 탑승 장소를 별도로 마련해 관람객에게 실제 UAM을 탑승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UAM 미니어저를 활용한 드론 물품 배송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호 기자

시는 섬 박람회 개최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9월까지 전라남도도와 한시 기구 설립과 별도 정원 등에 대한 협의의를 거쳐 1국 2과 체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재단법인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섬 박람회지원단은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섬 박람회 기본계획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 연관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며 “섬 박람회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소외된 섬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세계박람회 개최로 주목받는 여수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호 기자

장마전선 광주·전남 150mm 이상 ‘장대비’

전남 9개 지역 호우특보 전망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이틀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2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26일까지 전남 남해안에 150mm이상 비가 내린다.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도 이틀 동안 40~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이날 오후부터 광주·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전남 해안엔 이날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60mm의 강한 비가 내린다. 이 밖에 지역도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전남 9개 시군(고흥·보성·여수·장흥·강진·해남·완도·신안·진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권형안 기자

광주 공공심아어린이 병원 선정 2면

광주·전남 유통인소 개막 4면

멸종위기종 큰바다 사자 목격돼 9면

3D 구현 내부, 외부 영상 제공

전원주택 · 조림식주택

홈인테리어 · 상업인테리어

010-6265-0057

철골 공사
 조림식주택 목조주택 이동식주택
 건축 공장 창고
 방부목테라스 측사 토목
 인테리어 리모델링